

미군 장비 구매 관계자들은 2개의 파별로 분열되었다. 국방부의 군사장비 사용자들이 항상 갈라져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일은 대단히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70년대와 '60년대에는 전략핵 유도탄 옹호자와 큰 폭격기 옹호자가 있었고, 그후에는 로켓트 처 유도탄 옹호자와 최근에는 중사단전투 처 輕사단전투 옹호자들이 있다. 현재는 행동 및 장비개량과 처 신장비파가 있다.

美 해병대에는 상당량의 신형 Abrams 주전차 구매를 선호하는 장교들이 있는 반면, 다른 장교들은 오래된 M60 주전차를 신형 주전차와 같이 효과적인 반동장갑과 생존성 향상으로 운용할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약 1백95대의 M60 주전차가 '88년과 '89년에 반동장갑으로 새롭게 무장함으로써, 소련의 RPG-7과 같은 대전차 유도탄에 대해 충분한 방어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A.M. Gray 미 해병대 사령관은 미 해병 예비군들에게 M1A1 주전차를 공급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만약 미 육군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개량될 M60 주전차는 5천1백대를 상회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손쉽고 값싼 사업계획은 아니다.

미 해병대의 계획과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 V-22 Osprey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

어떤 사람은 Osprey의 임무 능력범위와 효율성은 다른것이 따라올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CH-46과 CH-53기의 합동능력은 V-22기가 병력 및 화물 수송분야에서 할수 있는 능력을 모두 수행할수 있으며, 성능이 개량된 Blackhawk기는 V-22기의 강습공격능력을 수행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 육군의 차기세대 정찰/공격 헬기인 LHX가 있다. 한때는 LHX기가 개발·생산단계에까지 도달하였으나 현재는 국방부와 의회사이에 여러 의혹들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는 전술소요가 덜하지만, 유럽의 가상상황에서 LHX기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

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장기계획인 육군 헬기 개량사업(AHIP)의 일환인 Apache AH-64기와 다른 기종들이 육군의 가능성 있는 미래의 시나리오하에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된 의견이 나오게 된데에는 LHX계획을 사장시킬까바 우려하고 있는 헬기 제작업체 자신들에게도 부분적으로는 책임이 있다.

MD 헬기사는 Apache 헬기 개량계획에 참여하고 있고, Bell사와 Boeing사는 한때 V-22기를 육군 공격 플랫폼으로 제안하였으며, 국내판매 뿐만 아니라 해외판매도 염두에 두고 기존의 공격기종들을 개량하였다.

Sikorsky사는 여러 방법으로 특수작전용뿐만 아니라 성능이 향상된 다용도헬기로 개량할수 있는 Blackhawk기를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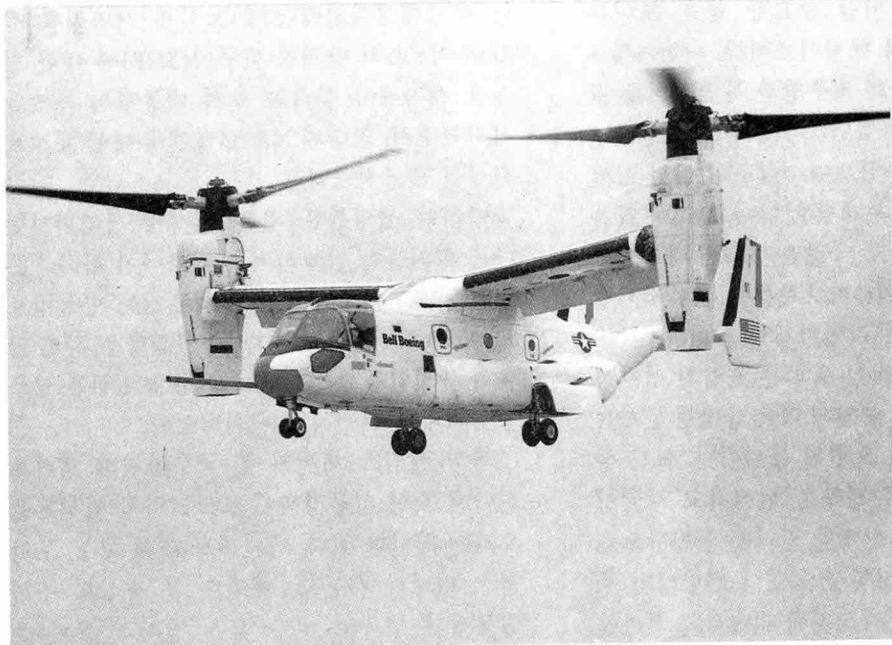
C-17기 처 C-141기와 C-130기가 있는데, 이중 후자의 두 기종은 미군에게 군사행동으로서 효과적인 병력의 대륙횡단을 위해 필요한 하루에 1천8백만톤 마일(ton mile : 톤수와 마일 수와의 곱, 철도·항공기 따위의 수송량을 재는 단위)을 제공하기가 힘들 것이다.

혹은 Standoff 병기를 장거리수송하는 B-52기 처 B-1과 B-2 폭격기가 있는데 미래의 적들이 보유할 최신 레이다 장비와 장거리 대공유도탄을 B-52기가 피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렵다. 그러면 다음은 무엇인가?

미국이 개량한 F-4와 F-5기를 선호하여 즉각적으로 F-16기의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이 큰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개량한 F-16기를 선호하여 개량 전술전투기 개발계획(ATF)을 취소할 것 같지는 않다.

미 공군은 한때는 ATF기가 근접공중지원기 임무를 수행하도록 고려하였으나 F-16기를 채택하였다. 확실히 현존장비에 대한 개량을 통해 경비를 절감한 국방부의 연구가 곧 발표될 것이다. 또한 이 수치는 확실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회가 위협과 미래의 작전비용을 계획과 관련하여 신장비들의 가치를 조



어떤 사람은 V-22 Osprey의 임무 능력범위와 효율성은 다른것이 따라올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CH-46과 CH-53기의 합동능력은 V-22기가 병력 및 화물 수송분야에서 할수 있는 능력을 모두 수행할수 있으며, 성능이 개량된 Blackhawk기는 V-22기의 강습공격능력을 수행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절약이라는 매력적인 요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술이 앞으로의 미·소의 병력과 전차, 계속적인 핵무기 감소에 의한 재래식 군사력에 부과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장비개량 열풍은 획득분야에서 몇몇 타협안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한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많은 B-52기가 개량된다면 그에따라 생산은 75대이하가 될 것인데, 이 75대는 처음 주문한 1백35대에서 줄어든 것이다. 다른 기종의 항공기 유지와 보수 또 게다가 이중적인 훈련이라는 면을 고려하면 이것은 분명하다.

무기수출국과 주요 수입국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무기판매 협상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사실들은 차이가 있다.

1989년에 약 8조3천억원이상을 번 소련이 세계 최고의 무기수출국이라는 점이다. 소련은 제3세계 무기수입국에 인도된 무기 가운데 3분의 2이상을 제공하였다.

미국은 1989년에 소련에 이어 무기수출국 2위를 차지하였으며, 무기판매로 약 8조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면 주도적인 무기수입국은 어느 나라인가? 미국 군비통제 및 군축국(ACDA)에 따르면 GNP의 상대적인 비율에 비추어 볼때 이라크가 주요 수입국이다. 그 다음은 사우디이며, 3위는 印度이다.

또다른 주요 무기수입국은 파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엘살바도르, 아프카니스탄, 남아프리카 여러나라, 이스라엘, 시리아 등이다. 이런 모든 국가들은 지역분쟁에 대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81년부터 '90년까지 미국은 국방력 증강을 위해 약 1천8백조원을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1척의 항공모함, 여러 척의 전함과 4개의 육군 정규사단, 5개의 輕사단, 4천5백대 이상의 M1A1 주전차 그리고 공군의 추가적인 4개의 전투비행단이 포함된다.

사실상 미국과 소련의 군사비용 절감과 이에따른 평화배당금은 아마도 앞으로 맞부딪치게될 많은 상황에서 얇은 보호막이 될 것이다. (旭)

〈Miltech 90/7〉